
 ◆ KOEMA 消息 ◆

1995年度 始務式 舉行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1月6日 振興會 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995년도 始務式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李喜鍾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흥회가 만 5년을 계기로 자립기반을 구축,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됨으로써 업계는 물론 관련기관등으로 부터 좋은 인식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우리 업계의 수준향상 도모와 비전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의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우리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업계 스스로 그동안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세계와 어깨를 견주고 해외지향적인 활동과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업체간의 일체감 조성과 전기공업 수준향상에도 힘써 우리업계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 중전기기 수입업체 총람」발간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우리 전기공업계의 해외시장 개척및 진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33개 주요 수출 유망국의 국별·품목별 바이어 리스트를 종합수룩한 「해외 중전기기 수입업체 총람」을 발간하였다.

본서는 4개지역 33개국으로 분류하여 발전기, 전동기, 전동공구, 변압기, 차단기, 전선, 전·축 전지, 기타 전기기기 바이어 및 전기관련 입찰기관과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기공업관련 국제 전시회 및 주요국의 전기공업 수출·입 통계등을 수록하였다.

올해 WTO(세계무역기구)의 본격 출범으로 우리 전기공업계도 내수시장 경쟁차원을 넘어 국제 경쟁시대로 돌입할 시점으로써 본서가 매년 늘어나는 전기공업 무역적자 해소및 수출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